

Tel. 213-739-0403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E-mail : chdailya@gmail.com

FRIDAY, January 23, 2026 Vol. 993



기독일보 창간 22주년 감사예배 “파수꾼 사명 재확인”

**편집고문 10명·자문위원 15명
위촉식·이사장 취임식
민종기 목사 “올바른 처방 제시
하는 언론 돼야” 송정명 목사
“미주를 넘어 전 세계 사랑받는
언론되길”, 센터메디컬그룹
제이 초이 대표, “22년 역사,
진심이 만든 결과”**

2004년 창간 아래 미주 교계의 연합과 일치, 지역사회를 섬기기에 힘써온 기독일보가 20일 오전 10시에 토렌스제일장로교회(고장현 목사 시무)에서 창간 22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언론이 되기를 재결단했다.

이날 행사는 1부 창간 22주년 감사예배, 2부 편집고문 자문위원 위촉/이사장 취임식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에서는 이성일 목사(온타리오연합감리교회 담임)의 인도로 시작되어 대표기도에 정우성 목사(본지 편집고문), 특송에 남가주장로 성가단(단장 한철수 장로, 총무 이승대 장로, 이사장 이흥주 장로, 지

희 김정대 목사, 반주 윤경미 사모), 성경봉독 김영수 장로(OC 장로협의회 회장), 설교 민종기 목사(본지 편집고문), 축도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원로) 순으로 거행됐다.

‘기독일보의 복된 파수꾼 사명’(이사야 52:7-10)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민종기 목사는 파수꾼이란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처

방을 내리는 존재라고 말했다. 그는 “성경 속 파수꾼 역시 망대에 올라 정보를 얻는 자로, 그가 전하는 소식에는 슬픈 소식과 기쁜 소식이 함께 담겨 있다.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은 비통하지만,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2026년에 주목되는 美 대법 판결 5가지

미국 대법원이 올해 임기에서 현 법과 사회적 논쟁의 최전선에 놓인 다섯 가지 굵직한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수개월 내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정책·종교 자유·성별 정체성·시민권 제도 등 미국 사회의 핵심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먼저 출생 시민권 제한 여부와 관련해 헌법 수정 제14조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를 예고한 행정명령은 불법이민자의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

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지방법원이 효력을 차단했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 바바라’(Trump v. Barbara) 사건을 통해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게 된다. 1898년 윙 킴 아크(Wong Kim Ark) 판례도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두 번째는 콜로라도 전환 치료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룬 ‘카일리 차일스 대 살리자르’(Kaley Chiles

v. Salazar)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전환 치료를 금지한 콜로라도 주법이 상담사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적 권리로 침해하는지를 다룬다. 항소법원은 해당 법을 지지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구두 변론을 진행하며 최종 판단을 준비 중이다. 현재 23개 주와 워싱턴 D.C.가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어 전국적인 파급력이 크다.

세 번째는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

성 스포츠 출전 금지 여부다. 아이 다호와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각각 제정된 여성 스포츠 보호법은 트랜스젠더로 정체성을 밝힌 남성 선수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하고 있다. ‘헤콕스 대 리틀’(Hecox v. Little) 사건과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West Virginia v. B.P.J.) 사건은 성별 규정과 스포츠 공정성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여준다. 대법원은 두 사건을 연달아 심리했으며, 연방 법무부는 주 법률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네 번째는 뉴저지 법무장관이 임

기부자 정보 공개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된 ‘퍼스트 초이스 대 플랫킨’(First Choice v. Platkin)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매슈 플랫킨 뉴저지 법무장관이 생명 존중 임신 관리 센터에 기부자 명단과 기록 제출을 강제로 요구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센터 측은 소환장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지만, 하급심과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구두 변론을 청취하며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강혜진 기자 → 3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7 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면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 마동한 법률상식

마동화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화 변호사그룹 대표 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01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6년 설치 시)

원금 회수 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2026년 1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LA나성순복음교회 본당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특별공연: 한세콘서트콰이어

한미동맹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연합조찬기도회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7시 10분 | 베리힐스 소피텔

기독일보 22주년 기념 25명 고문·자문위원회 구성

→ 1면 기사 (기독일보, 창간 22주년)

에 이어서

이어 이사야 44장을 말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만에 해방을 맞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기시켰다. 민 목사는 “고레스 2세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체제로 전환되면서 백성들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다”며 “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흥분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사역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다.

민 목사는 기독일보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했다. 그는 “위기의 소식이든

기쁜 소식이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세상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영적·시대적 안테나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바쁜 소식을 전하는 언론이 되어야 한다. 기독일보는 정론지로서 신뢰할 수 있는 소식을 전해왔다”며 “언론으로서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식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파수꾼은 단순히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독일보의 ‘위브릿지 (WeBridge) 사역’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성경 필사 장학금’ 사역을 통해 “기독일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증명이 되고 있다”며, 기독일보를 적극적으로 돋고 후원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고문을 대표해 축사를 전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독일보의 지난 22년을 ‘시련을 딛고 일어선 성장’으로 회고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송 목사는 “이민 사회에서 언론을 경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기독 언론의 길은 더욱 혼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신임 이사장 폴 킴 목사(BTS 솔라 대표) 취임식은 이성일 목사, 광운영 집사(기독일보)의 인도로 시작해 축하연주에 여근하 교수(바이올린리스트), 자문위원 및 편집고문

위촉식, 이사장 폴 킴 목사(BTS 솔라 대표) 취임식, 감사패 전달 Jay Choi 센터메디컬 대표, 자문위원 인사, 편집고문 인사, 이사장 취임사, 영상 축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히 여근하 교수의 바이올린 축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다.

하연주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냈다.

구경모 목사(한빛장로교회)는 자문위원을 대표해 “기독 언론의 사명은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서 복음의 진리와 교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바르게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위촉해 주신 15명이 작은 지혜와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그는 기독일보의 ‘위브릿지 (WeBridge) 사역’과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성경 필사 장학금’ 사역을 통해 “기독일보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 또 증명이 되고 있다”며, 기독일보를 적극적으로 돋고 후원할 것이라 밝혔다.

편집고문을 대표해 축사를 전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기독일보의 지난 22년을 ‘시련을 딛고 일어선 성장’으로 회고하며, 언론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했다.

송 목사는 “이민 사회에서 언론을 경영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며, 기독 언론의 길은 더욱 혼난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그는 “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그는 “22주년을 맞아 새롭게 출발하는 기독일보가 남자와 미주를 넘어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사랑받는 언론

"2026년, 무너진 기초 다시 세우고 대부흥의 해로"

2026년 새해를 맞아 미주 한인 교계가 기도로 마음을 모았다. 지난 1월 19일(월)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 목사) 소망 예배실에서 '2026 신년 연합 기도회'가 개최됐다. 이번 기도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청교도 신앙의 회복을 꿈꾸며, 미국과 한국, 캘리포니아의 영적 회복을 위해 마련되었다.

1부 예배 김은목 목사 개회기도, 김의선 장로 성경 봉독(마 28장 19-20절), 무궁화 합창단(단장 강성희 권사, 지휘 지경교수) 찬양 순으로 진행되었다.

신승훈 목사는 '부흥이 오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흥은 성도들이 깨어 준비할 때 임한다"고 강조했다. 신 목사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기도 ▲철저한 회개와 합당한 열매 ▲복음 전파와 선교 ▲사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 ▲제자를 만들어 가르치라 등 '5 가지 실천 강령'을 제시했다.

2부 기도회가 강태광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기도회 첫순서는 강순영 목사의 기도



1월 19일(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2026 신년 연합 기도회가 개최되었다.

비전 제시였다. 강순영 목사는 한인 주지사 후보인 체안 후보의 출마 등 기도 제목이 많은 올해 더욱 기도하자고 도전했다.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건국 선조들의 꿈이었던 '성경적 가치관이 다스리는 나라'로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특히 "모든 부흥 운동의 진원지였던 캘리포니아가 현재 영적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캘리

포니아의 회복과 대부흥을 위한 기도를 뜨려했다. 이날 기도회는 총 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나선 ▲ A그룹(강문수 목사 팀)은 '부흥과 회개'를 주제로 교회의 형식주의와 무력함을 회개하며,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의 포문을 열었다. 1)우리 시대 영적 대각성을 위해(안현숙 목사), 2) 신실한 중보 기도 사역자(김영일 목사), 3)

교회의 부흥, 갠신, 회복을 위해(양명숙) 기도했다.

▲ B그룹(전영숙 전도사 팀)과 ▲ C그룹(김영구 목사 팀)은 각각 미국과 한국의 정세를 두고 기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맞은 미국이 성경적 가치관을 회복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간구했으며, 박세현 목사가 1) 한국의 정치적 안정과 지도자들의 각성을 위해, 박기덕 목사가 2)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

을 위해 기도했다.

▲ D그룹(김미영 전도사 팀)은 캘리포니아 지역을 위해 기도했다. 캘리포니아의 치유를 구하며, 이번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재호(Che Ahn) 목사를 언급하며 영적 리더십이 주정부에 세워지기를 강력히 지지하고 기도했다. 안 목사는 영상을 통해 "캘리포니아에 영적 변화와 부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 ▲ E그룹(김철민 장로 팀)은 북한과 중국, 이란 등지에서 핍박받는 선교지와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다. 특히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중국의 김명일 목사의 안전과 석방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기도모임은 강태광 목사의 광고, 주님의 영광교회 찬양단의 찬양과 한기형 목사(교협 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주최 측은 이번 신년 기도회를 기점으로 격월 단위의 연합 기도 모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주 지역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원 300용사'를 모집하여 기도의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토마스 맹 기자

미주 CBS, 이종용 대표 취임 "이민 사회와 소통하는 복음 방송으로 도약"

이종용 신임 대표 "복음 전파와 사회적 소통, 이민 목회 경험 녹여낼 것"

미주 CBS TV는 지난 20일(화) 오후 6시 중앙일보 3층에 위치한 CBS 사무실에서 신임 대표 이종용 목사(코너스톤교회 원로)와 신임 후원 이사장 민 김(오픈뱅크 이사장) 회장의 취임 감사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날 취임예배는 강태광 목사의 기도로 시작되어 감사패 증정, 신임 민 김 이사장, 대표 이종용 목사 취임사, 고승희 목사 설교, 찬양,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용 신임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미주 C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복음 전파 기능 강화 ▲크리스천의 영적 성숙 ▲이민 생활에 맞는 크리스천 삶에 초점을 ▲사회 공헌 및 선도 등 4가지 비전을 제

시했다. 이 대표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며 "한국의 콘텐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이민 사회의 독특한 문화와 삶을 반영한 콘텐츠를 통해 미주 한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4년 6개월간 수고하신 전임 한기형 대표와 박형민 이사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 민 김 오픈뱅크 이사장은 "이종용 대표님을 뒤에서 돋으며, 방송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힘을 보태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이번에 취임한 이종용 신임 대표는 단국대 행정학과와 International Bible College(San Antonio, TX)를 졸업하고 샌 안토니오 남부침례교회를

담임했다.(1985-1993) 이후 코너스톤교회를 개척해 33년간 시무하며(1993-2025)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다.

함께 취임한 민 김 신임 이사장은 한인 은행권 최초의 여성 행장 출신으로, 2010년 오픈뱅크 행장 취임 후 은행을 나스닥 상장 기업으로 키워냈다. 현재는 오픈뱅크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오픈뱅크 기관을 통해 나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가 설교자로 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사 43:19)"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고 목사는 "욥이 고난 끝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 것처럼,



미주 CBS TV 기독교방송이 새로운 리더십을 맞이하며 제2의 도약을 선언했다.

미주 CBS TV가 마주한 현재의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새 역사를 쓸 기회"라며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방송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4년여간 방송사를 이끌어온 한기형 전 대표와 박형민 전 후원 이사장에게 감사패가 전

달렸다. 미주 CBS TV 개국 때부터 헌신해 온 한기형 목사는 앞으로 KCBC 기독교방송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예정이다.

미주 CBS TV는 교단과 개교회를 넘어 한인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연합과 소통의 매체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주디 한 기자

→1면 기사 <美 대법 판결 5가지>에 이어서 마지막은 라스타파리 안 수감자의 강제 면도와 관련된 종교 자유 및 손해배상 문제를 다룬 '랜도르 대 루이지애나 교정

국'(Landor v. Louisiana DOC) 사건이다. 이 사건은 라스타파리 안 신념을 가진 수감자가 강제로 머리를 깎인 사건을 둘러싼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다룬다. 쟁점은

종교 토지 이용 및 기관 수용자법(RLUIPA)이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지 여부다. 원고 측은 개인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의회

의 권한을 초과한다고 반박했다. 이번 다섯 사건은 미국 사회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청소년 상담·여성 스포츠 규정·종교 자유

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법적 지형이 바뀔 수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미국 사회의 가치와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www.cpu.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새운이름 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

개강일 : 2026년 1월 26일 (월)

SINCE
1977



미래를 여는 첫 걸음, 최첨단 디지털 글로벌 캠퍼스에서!



Convocation Worship

다문화, 다민족, 다언어 예배

한국어 | ENGLISH | 中文

개강예배 1월 26일 오후 1시

캘리포니아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562 926 1023

세계적인 워십팀

"새들백 (Saddleback Worship)" 과 함께!

최신 AI 동시통역 기술 도입!

언어의 장벽 없이 모든 회중이 한 마음으로!



AI와 선교 세미나

SEED 선교회(대표 류응렬 목사)가 FMnC 디지털선교연구소와 협력하여 오는 2026년 1월 30일(금)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선교를 위한 Google AI 입문과 활용”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두 세션으로 진행된다. 세션 1에서는 이세영 선교사(SEED USA, CPU AI 설교연구소장)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선교전략 수집’을 주제로, AI 시대 선교 패러다임 변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초 이론, 선교 맞춤형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해 나눈다. 세션 2에서는 전생명 선교사(FMNC 과학기술전문인선교회)가 구글 AI 선교 활용에 대해 나눈다. 세미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교사, 목회자, 신학생, 미디어 사역자, 관심 성도는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은 QR 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문의: infoseedusa@seedtoday.org

연세조찬기도회

연세조찬기도회는 연세대 동문들과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1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미주복음방송에서 개최한다. 올해는 연세목회자회와 함께 신년기도 모임을 갖는다.

일시: 1월 24일(토) 오전 8시 30분
장소: 미주복음방송(224.622.9183)

GMU 봄학기 부흥회

그레이스미션대학교는 오는 2월 3일(화), 5일(목) 저녁 7시-9시까지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한기홍 목사를 강사로 “우리의 소명을 소생시키다(Revitalizing Our Calling)”라는 주제로 봄학기 부흥회를 연다. 6시 저녁 식사 제공.

일시: 2월 3일(수) 저녁 7:00-9:00
장소: 은혜한인교회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

사랑으로 심은 희망의 씨앗, 119명의 장학생에게 결실로 피어나다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1월 19일(월) 오전 11시, 부에나 파크에 위치한 갈보리선교교회(임상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정수 남가주밀알 행사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밀알장학팀의 찬양으로 시작됐다. 이어 밀알 사역의 감동을 담은 ‘밀알 스토리’ 영상이 상영됐으며, 이준우 교수(강남대·풀라신학교)의 기도와 임상은 목사(남가주밀알 부이사장)의 설교로 이어졌다.

임상은 목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 씨앗을 심어야 한다. 오늘 장학금을 받은 장애인 학생들이 비록 어려운 여건



2026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수여식이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의 씨앗을 열심히 뿌리고 이를 부단한 노력과 인내로써 성장할 것이다.”

이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종희 남가주밀알 단장의 감사의

말씀, 이준우 교수와 김병학 목사(주님의교회)의 격려사에 이어 이영선 미주복음방송국 사장의 축도로 밀알 장학금 수여식이 막을 내렸다.

이종열 남가주밀알 이사장과 이

정수 이사, 임상은 목사, 김병학 목

사, 이준우 교수, 양희원 이사, 이영선 사장, David Chang 대표, Wayne Uyehara 목사, 이종희 단장, 이준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장학금 수여식에서 미주장애인장학 7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장학생 18명, James Worldwide 장학생 10명, Moon Foundation 장학생 10명, Chong's Family

Foundation 장학생 5명, Faith and Donovan Chang Foundation 장학생 16명, 제3국 및 동남아 장학생 20명, 장애인선교사역자 육성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119명에게 \$134,888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남가주밀알선교단 기사 제공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 소원이 인생을 만든다”

갈릴리선교교회, 명성훈 목사 초청 말씀 집회 개최

갈릴리선교교회(한천영 목사)는 17일부터 18일까지 명성훈 목사를(퓨처처치 연구소) 강사로 초청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주제로 신년 말씀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서 명 목사는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이다. 자녀를 남기고, 책을 남기고, 성전을 남기며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 인간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라고 말했다.

이어 “라이트 형제는 수없이 실패했지만 하늘을 낸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그 강력한 믿음과 소원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성한 삶의 기초가 됐다”고 전했다. 꿈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것.

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



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자산은 소원”이라고 말했다.

명 목사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현재의 삶을 바꾼다고 강조했다.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처럼, 꿈이 없으면 삶은 의미를 잃는다.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오늘의 삶을 낭비가 아닌 투자로 만든다”고 말했다. 야구 선수를 꿈꾸며 어린 시절부터 철저히 훈련한 한 청소년의 사례를 통해, 꿈이 현재의 절제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며 “천국은 장차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초월해 계시며,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론에 대해서는 ‘퓨처처치(Future Church)’라는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며 가 될 때 하나님에 기뻐하신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회

성장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장은 분립과 개척으로 이어지는 성장”이라고 조언했다.

명 목사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며,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교회를 위해 희생만을 말하기보다, 각자의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교회도 함께 성장하게 된다”며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단 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꿈을 꾸는 교회는 위대한 교회”라고 강조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그는 “오늘 집에 돌아가 자신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라”며 “모든 것은 꿈에서 시작된다.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꿈을 꾸게 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그림을 불들고 살아가길 바란다”며 “갈릴리선교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퓨처처치’를 세워가는 2026년이 되길 축복한다”고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아버지 밤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9
34191 Harvard rd Newberry springs ca 92384

(주)대원 전자동 시설로 만든 왕김밥 4종



새우튀김 김밥/매운 오징어 김밥/찰진 김밥/야채 김밥

교회 스페셜

10pcs 한줄 \$4.50

무료 딜리버리

60줄 이상 주문가격

주문의 949-330-9033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해 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www.btssolardesign.com



SCAN ME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택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5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면기료 절감: 최대 90%

LA 213.500.8000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OC 714.702.0151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 센터메디컬그룹

변진섭 코서트

의사망향

2.27.2026, FRI, 8PM
YAAMAVA THEATER

혜택 대상: 센터메디컬그룹 회원과 가족
예약 문의: 888-847-3098 (9 AM - 5 PM)

본 공연 티켓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제공됩니다.
No-show를 하실 경우, 향후 공연 및 행사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참된 성화, 개인 경건 넘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양기성 목사, 이하 웨협)가 19일 경기도 부천시 구세군부천교회(조한근 사관)에서 '2026년 신년하례회'를 열고 새해 사역의 방향을 공유하고 웨슬리언 신앙의 사회적 실천을 다짐했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웨슬리언 평신도 사회성화 운동'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웨슬리언 전통을 잇는 교단 지도자들과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자리해 예배와 교제, 말씀을 통해 새해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예배와 하례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이선목 목사(상임회장, 숭의감리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손재형 장로(평신도지도자협 대표회장, 흥은성결교회)의 기도와 유상훈 장로(평신도지도자협 서기, 하늘교회)의 성경봉독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설교는 웨협 대표회장인 양기성 목사가 '성령충만한 평신도의 사회적 성화'(사도행전 2:17~18, 야고보서 2:17, 히브리서 12:14)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양 대표회장은 웨슬리언 신앙의 핵심인 '성화'의 의미를 개인 경건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실천으로 확장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기독교는 개인 구원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결이어야 한다"는 웨슬리의 신앙 전



한국웨슬리언교회지도자협의회(웨협) 2026 신년하례회 ©김진영 기자

통을 언급하며 "참된 성화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며, 평신도의 일상과 사회 속 실천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회장은 △성령 체험과 삶의 변화 △말씀과 기도를 통한 내적 성숙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가정과 일터, 지역사회에서의 평신도 사명 등을 제시하며, "웨슬리언 성화는 개인의 거룩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향한 사랑으로 확장될 때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진호 사관(학술공동회장, 구세군대학원대

전 총장)과 하봉호 장로(평신도지도자협 총무, 개봉교회)가 각각 웨협의 선언문과 평신도 결단문을 낭독했다. 이후 환영사와 축사가 이어졌다. 이날 장소를 제공한 구세군부천교회의 담임인 조한근 사관(학술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

웨협은 명실상부 한국 교계를 이끄는 웨슬리 성령운동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신년에 함께 모여 웨슬리의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축사는 이영훈 목사(상임고문, 기하성 대표회장, 여의도순복음교회), 서명수 박사(학술공동회장, 협

성대 총장), 황덕형 박사(학술공동회장, 서울신대 총장), 김진두 박사(학술고문, 감신대 석좌교수)가 차례로 전했다.

먼저 영상으로 축사한 이영훈 목사는 "오늘날 대립과 갈등, 영적 침체를 겪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웨슬리의 영성이 절실히하다. 우리가 그 영성으로 재무장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화합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명수 박사도 영상을 통해 "웨슬리언 형제 교단들이 모여 신년하례회를 갖게 되어 축하드린다.

김진영 기자

[사설] 저명한 기독교 작가의 때늦은 불륜 고백

세계적으로 저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앤시가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하며 목회 사역과 글쓰기, 강연 활동에서 은퇴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년간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적 영감을 줬던 저명한 기독교 작가의 절필 선언이 기훈 여성과 불륜 관계 때문이라는 게 적잖은 충격이다.

양시는 최근 한 기독교 매체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저는 크게 부끄럽게도 8년 동안 기훈 여성과 죄악스러운 관계를 맺었다"고 고백했다. 자신의 잘못으로 아내와 가족, 상대 여성의 남편, 그리고 독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면서 "앞으로 신뢰를 회복하고 55년간 이어 온 결혼 생활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의 아내 또한 "저는 배신을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트라우마와 절망의 자리에 있다"며 "그러나 저는 55년 반 전에 신성하고 구속력 있는 결혼 서약을 했고, 그 약속을 깨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죄, 특히 필립의 죄를 대가로 치르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저에게도 용서할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필립 양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등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탐구하는 글을 꾸준히 발표해 전 세계 독자들에게 기독교적 영감을 준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다. 복음주의권 기독교 잡지 크리스천티티 투데이 편집자와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브닝 포스트, 퍼블리셔스 위클리, 시카고

트리뷴 매거진 등에서 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해왔다.

그런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갑자기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에 자신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회개의 감정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 요인이 작용했는지 그의 고백만으로 판단이 안 선다.

다만 스스로 "기독교 사역에서 자격이 박탈됐기에 글쓰기, 강연, 소셜미디어에서 은퇴한다. 대신 날은 세월을 이미 쓴 글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 그리고 제가 상처 입힌 이들의 삶에서 치유가 있길 기도한다"라고 밝힌 것으로 볼 때 오랜 변민 끝에 내린 결단으로 보인다.

그의 고백은 그를 짓눌렀던 죄

책감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회개의 과정을 거친 후에 비로소 얻은 용기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독자들의 실망과 배신감까지 한꺼번에 덮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아내와 대중 앞에 불륜 사실을 고백한 건 그의 글에 감동했던 전 세계 독자들에겐 커다란 충격이다. 8년 동안이나 숨겨온 사실을 고백했다는 점에서 늦었다는 감이 든다.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깊이 회개하고 대중에게 다시 용서를 구한 것이기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가 말한 대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의 길이다. 그러면 그에게서 상처를 받은 이들의 마음의 짐이 차츰 가벼워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원하트 화요찬양모임 새롭게 시작

남가주 예배사역팀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오는 2월 3일(화) 저녁 7시 30분, 뉴라이프선교교회 소예배실에서 '화요찬양모임(이하 회찬)'을 새롭게 시작한다.

이번 회찬은 2026년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첫 예배로, 새해에도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예정이다.

회찬은 원하트 미니스트리가 12년 간 지켜온 주중 예배 모임으로,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이다. 회찬은 2월 첫째 주 화요일을 시작으로,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저녁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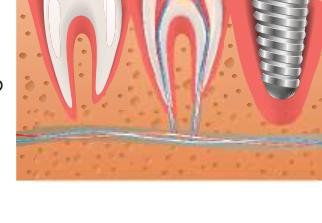
한편, 원하트 미니스트리는 새해를 맞아 1월 31일까지 사역 멤버를 모집한다. 보컬, 악기, 미디어로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은 lynnkimoneheart@gmail.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원장님은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한번의 선택”

부모님께 맞는 의사부터
부모님이 찾는 병원까지

SMG에
있습니다

홍보대사 고두심



SMG 연계 병원

UCLA, 시더스-사이나이, 할리우드 장로병원, 세인트 주드,
세인트 조셉, 애너하임 리저널, PIH 굿사마리탄



SMG 연계 보험사

얼라인먼트, 앤섬, 블루쉴드, 클레버케어, 휴매나, 헬스넷,
몰리나/센트럴헬스, 스캔, UCLA 어드벤티지, 유나이티드, 웰케어

서울메디칼그룹이 5,500명의 의사와
우수한 병원 네트워크와 함께
당신의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문의전화 **800.611.9862**

SMG
서울메디칼그룹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SMG 카카오채널에
방문하세요!

이 광고에서 사용된 자표는 SMG가 2025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2026 신년 인터뷰2] “제자 세우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남긴다”

“토요한글학교 사역이 2세 목회자 배출까지 이어져… ‘같은 믿음의 DNA’ 가 다음 세대를 지킬 것”

2026년 신년을 맞아 미주 기독일보는 미주 주요 목회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 이민교회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의 방향을 모색한다.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세대 구조 변화 속에서 이민교회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새롭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이번 신년 인터뷰는 말씀의 본질, 제자훈련, 다음 세대,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역 및 디아스포라 교회와의 연대를 핵심 주제로 진행됐다.

두 번째 순서로는 뉴욕 지역에서 오랜 시간 건강한 목회로 신뢰를 받아온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 이종식 목사를 만났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는 제자훈련을 교회의 중심축으로 삼아 세대 간 신앙 전수를 꾸준히 실천해 온 교회다. 특히 토요한글학교 사역을 단순한 교육을 넘어 선교의 통로로 확장하며, 아이들과 부모 세대를 연결해 왔다. 이 목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교회 안에서 2세 목회자가 실제로 세워진 과정과 그 배경을 나누며, 제자훈련이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때 교회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종식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교회 안에서 2세 목회자가 실제로 세워지고, 신학교 진학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부터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고 고민해온 주제가 있었습니다. 신학교들이 점점 문을 닫고, 이민자 수는 줄어들고, 2세들이 신학교에 진학하지 않다 보니 교사와 교육자를 구하는 일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계속 기도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 고민 끝에 교회 안에서 교사와 다음 세대를 위해 설교할 수 있는 평신도 설교자를 세워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고민 자체는 오래됐지만 실제로 시작한 것은 24명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참여가 이어지면서 3기, 4기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설교자반에 참여한 분들은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큰 도전을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베이사이드장로교회 담임 이종식 목사 ©기독일보

분명한 부르심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세 분이 미국의 웨스터민스터신학교에 입학해 수학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분은 이미 우리 교회 중등부와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20대 후반으로, 원래는 각자의 분야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분들이었습니다. 엔지니어 분야나 상상 분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학원까지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신학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한 분들뿐 아니라 설교자반을 거친 많은 분들이 현재 교회학교 교사로 섭기며, 본인의 전문 직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교회 내 여러 부서에서 설교와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목사님께서 특별히 불드신 원칙이 있으셨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늘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지만, 그동안 공부해 왔던 내용들을 잘 정리하면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평신도들이 설교를 했고, 스필전 역시 15세에 이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대학까지 마치고 충분한 훈련을 받은 분들이라면, 설교학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경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고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제자훈련과 사역자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32주에 걸쳐 교리와 성경을 배우는 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설교자반에서는 여기에 더해 설교를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강요』는 기초적으로 읽도록 했고, 조직신학 서적 역시 먼저 접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왔습니다.

-‘제자훈련’을 특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훈련을 불드는 이유는 제게 이것이 ‘사명’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게는 가장 분명한 부르심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 결국 제자훈련을 말하게 됩니다. 도미니카에 가도 제자훈련이고, 유럽에 가도 제자훈련입니다.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일이 교회의 핵심이라고 믿고 목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며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점과, 그 시간을 통해 얻은 배움이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사실 목회적으로 큰 위기는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제 몸은 하나이다 보니 시간적인 부담이 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과의 싸움이 늘 있습니다.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도 계속 관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제가 30대부터 당뇨를 앓아 왔기 때문에 어느덧 3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월-토)
중/고예배 오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예배 오후 10:45 새벽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정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가명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집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org

고창현 담임목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방상용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GRCEM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성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장유성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예배 7:30pm
주일3부예배 11:15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장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별다운국제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LA 별다운국제단

T. (954) 200-0875

립학준 담임목사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구봉주 담임목사

장마다예배 오전 11:30

영어성경부 오전 9:30, 11:30

한국어성경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이우호 담임목사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T. (954) 200-0875

지영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박신웅 담당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령청부회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r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00 성인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천년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김종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중장년)교류부회 오후 2:00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박신웅 담당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예배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예배 오후 2:00 KM대학령청부회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예배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예배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예배 오후 2:00 KM대학령청부회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중장년)교류부회 오후 2:00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중장년)교류부회 오후 2:00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7175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토)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중장년)교류부회 오후 2:00 새벽 6:00

최원일 담임목사

온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례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315-4020

LA 동부 지역

주일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월-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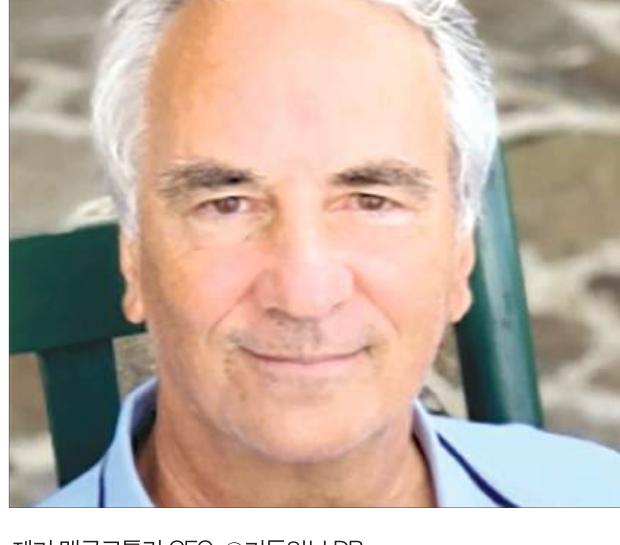
오전 6:00(토)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3부예배 오전 11:40 금요성경집회 저녁 7:30(금

목회자의 성적 타락과

회복 문제에 대한 성경적 성찰



제리 맥글로틀린 CEO, ©기독일보 DB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리 맥글로틀린의 기고글인 '성적 죄 이후, 목회자는 언제 회복(복직)되어야 하는가?'(When should a pastor be restored after sexual sin?)을 15일(현지시각) 게재했다.

제리 맥글로틀린은 현정 공화국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헌신하는 게스트를 대변하고 유대-기독교 윤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홍보 기관인 스페셜 게스트(Special Guest)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기고글 전문.

교회가 은혜와 진리 모두에 얼마나 충실했음을 가장 날카롭게 시험하는 질문 중 하나는, 목회자가 성적 죄에 빠졌을 때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이다. 최근 몇 년간 기독교 공동체는 두 극단 사이를 오가곤 했다. 한쪽에서는 영구적인 자격 박탈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급한 복직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 두 접근 모두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을 반영하지 못한다.

예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단호하다. 베드로가 자신에게 죄를 짓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마태복음 18:22)고 답하셨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을 더욱 분명히 하신다. “만일 그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누가복음 17:4). 즉, 용서는 횟수나 심각성, 타이밍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하루 안에 반복되는 회개조차도 용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용서와 지도자의 복직을 동일시하지 않는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하지만, 리더십은 권위를 맡기는 것이다. 이 두 범주를 혼동한 결과, 교회는 깊은 상처를 입어 왔다.

회개한 지도자를 끌없는 처벌로 짓누르거나, 반대로 회중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일이 반복되었다. 성경은 은혜와 책임을 함께 불러들여, 둘을 하나로 무너뜨리지 않는다.

목회자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받는 이유는 그들이 영적 권위를 지니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야고보서 3:1).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제시하는 감독의 자격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절제하며”, “신실한” 사람일 것을 강조한다. 이는 무죄한 완전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성과 성숙함, 도덕적 신빙성을 요구하는 기준이다.

성경은 또한 ‘넘어짐’과 ‘폐단’ 사이를 분명히 구분한다. 넘어짐은 심각한 도덕적 실패이지만, 고백과 회개, 그리고 징계와 책임의 과정을 거치는 사건이다. 반면 폐단은 반복, 악화, 속임, 교정에 대한 저항, 혹은 권위 남용으로 특징지어진다. 성경은 이 둘을 전혀 다르게 다룬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다. 그 죄는 극히 중대했다. 그러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깊이 회개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맡겼다. 평생의 결과를 짊어져야 했지만, 그는 회복되었다. 반면 사울은 반복적인 불순종과 자기합리화를 보였고 결국 왕권을 잃었다. 차이는 단지 행위가 아니라 책망에 대한 반응 속에서 드러난 인격의 방향이었다.

참된 회개는 눈물만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바울은 경건한 근심이 만들어내는 열매로 간절함, 변명하지 않으려는 태도, 죄에 대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인내를 언급한다(고린도후서 7:11). 진정한 회개는 결과를 받아들이고, 권력을 내려놓으며, 징계에 순복하고, 시간이 지나며 열매가 검증되도록 허용한다. 강단으로 서둘러 돌아 가려는 사람은 변화보다 직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성경은 과도한 처벌과 성급한 복직 모두를 경계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지나친 근심에 삼켜져 사탄에게 틈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린도후서 2:7-11). 그러나 같은 사도는 디모데에게 “아무에게나 결속히 악수하지 말라”(디모데전서 5:22)고 경고한다. 회복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신중한 분별의 과정이어야 한다.

동시에 양 떼를 보호하는 일, 특히 연약한 자들을 지키는 일은 결코 타협할 수 없다. 하나님은 양을 해치는 목자들을 책망하셨고(에스겔 34장), 예수님은 어린 자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8:6). 그러므로 성적 비행, 취취, 권위 남용의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말로 회개를 고백하더라도 다시 권력의 자리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용서는 교회의 보호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여기서 교회가 직면해야 할 또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있다. 이 글을 읽는 거의 모든 사람은 생각, 말, 혹은 행동으로 어떤 형태의 성적 죄를 범한 적이 있다. 예수님이 음욕을 품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마태복음 5:27-28). 성적 죄가 이처럼 보편적이기에, 이에 대한 반응은 종종 감정적으로 과열된다. 역사와 목회 경험은, 가장 격렬하게 정죄하는 이들 중 일부가 오히려 자기 안의 숨겨진 죄와 마주하기를 가장 꺼리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자신을 고발하는 내면의 양심을 잠재우기 위해 판단을 외부로 투사하기도 한다.

이 사실은 죄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단에는 반드시 겸손이 동반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린도전서 10:12). 징계의 목적은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회복과 보호이다.

따라서 성경적 기준은 지혜를 무시하는 감상적 은혜도 아니고, 구속을 부정하는 무자비한 정죄도 아니다. 성적 죄가 약탈적이지 않았고, 회개가 진실하고 지속적이며, 징계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 검증이 가능하며, 책임 구조가 마련되고, 일관된 열매가 확인될 때 목회자는 사역으로 회복될 수 있다. 반대로 성적 죄가 반복적이거나, 회개가 피상적이거나, 속임이 지속되거나, 권위가 남용되었거나, 다른 이들이 여전히 위협에 놓여 있다면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신실함이다.

복음은 용서를 요구한다. 그것도 같은 날 반복되는 회개에 대해서까지. 그러나 복음은 용서가 주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를 다시 권위의 자리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은혜는 죄인을 회복시키고, 지혜는 권력을 맡기는 방식을 다룬다.

교회가 용서와 리더십을 하나로 무너뜨릴 때, 양 떼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구속의 능력을 부인하게 된다. 그러나 두 가지를 함께 볼 때, 은혜와 진리는 나란히 걷게 된다.

궁극적인 질문은 타락한 목회자가 용서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이미 분명히 답했다. 진짜 질문은, 그 목회자를 다시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진정한 회개를 반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호하는가 하는 것이다.

최승연 기자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일이기도회(미지역주) 오후 8:30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예배 오후 5:30(화-금) 오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 예배 오전 7:45
2부 예배 오전 9:10
3부 예배 오전 12: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후 6:00(토) 오전 6:30

고대형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평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예배 06:00AM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396-4441 www.gmcg.org

주일 예배 (KM) 오전 10:30 중고등부(Youth) 오전 10:30
주일 예배 (EM) 오전 10:30 대학령년부 (College) 오전 10:30
유년부 (K-2) 오전 10:30 중보기도 (Intercessory prayer) 오전 9:40
초등부 (3-5) 오전 10:30

최현규 담임목사

주님 CHURCH

주일 예배 401 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626)901-9119 Email: joonim0623@gmail.com

LA 북부 지역,拉斯베가스, 타주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후 12:30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2부 오후 12:0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밭에 등이오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예배 8:00 중고등부(Youth) 9:30AM/11:15AM
주일 2부 예배 9:30AM 새벽기도회(일-토) 11:00AM
유아유치부 9:30AM 새벽기도회(월-토) 6:00AM
초등부 11:00AM 새벽기도회(화-금) 7:30AM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awn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예배 8:30 EM 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후 11:00 EM 예배 (2부) 오후 11:00
금요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화-토)

오명찬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주일 예배 오전 8:00 금요일성찬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5:30/토 오전 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7:00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363-5887 iccc.office@gmail.com

주일 예배 8:00AM 새벽예배 9:30AM/11:15AM
주일 2부 예배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예배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어,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송금관 담임목사

평강교회

죽고살고 품으로 살 오전 9:30
화요 3,3 기도회 품으로 살 오전 10:30 목요 TEE 암죽 Zoom 오후 7:30
목요 기도회 오전 10:00 한인타운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
T. (213)393-9136 http://pyongkang.com

주일 예배 1부 오전 9:45
주일 예배 2부 오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7570 Peace Way, Las Vegas, NY 89147
T. (702) 489-2999 www.joongangly.org

주일 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 10:00
주일 예배 2부 오후 11:00 교육부 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후 7:00
토요예배 오후 8:00 E.lvk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lvkcc.org/lvcc/index.php

주일 예배 1부 오전 11:30 AM
주일 예배 2부 오후 1:30 PM
수요예배 7:00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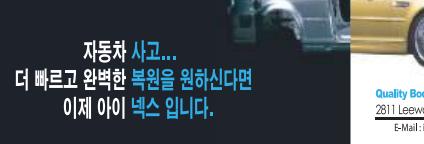
License #O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actimationcenter@gmail.com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것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래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일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수비조피(Beauty College) 최우수교수
- 한국국가대표 시상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치질! 수술없이 시술로도 가능한가요?

교통사고 전문

치질증상으로 항문소양증, 항문과
꼬리뼈 통증 출혈로 앓기도 두렵고
때번 화장실 가는것도 무섭다. 초강력 정력제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 7~25 lbs · 손목 터널 증후군 침치료 가능합니다

3대째 가업 영선한의원 213.380.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A, CA 90020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OP PLUMBING FOP SERVICE, INC.

License# 1139798

얼께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4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윤대혁 목사 “큰 부담, 기도 부탁할 수밖에”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통해 제2대 오정현 목사에 이어 제3대 담임으로 청빙이 확정된 사랑의빛선교교회 윤대혁 목사가 이후 첫 주일예배 설교를 1월 18일 전했다.

그는 설교 말미 “사랑의교회 청빙이 결정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 쉽지 않은 자리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자리”라며 “편하고 좋아서 간다기보다, 사명과 부르심이 있어 가기 때문에 큰 부담감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뗐다.

윤 목사는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된다고 친구 목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너 진짜 믿음 없다’고 하더라. ‘네가 떠나면 더 좋은 목사가 온다는 건 생각 못해?’ 네가 부흥의 방해물이 될 수 있는 거야”라고 하더라”며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싶었다. 제가 혹시 하나님의 부흥에 걸림돌



이 되진 않았을까”라고 술회했다.

그는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실 것이다. 여러분 다음 4기를 이끌 수 있는 좋은 분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자.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우리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대혁 목사는 앞서 “제가 요즘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에게 참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있다. 지금 교회 장로님들은 누구보다 고민이 많고 기도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

고 계신다”며 “교회 당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한다. 불러서 아래라저래라 묻기보다,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세요’라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윤 목사는 “장로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 ‘장로님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목회자에게 사랑받는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고 꼭 말씀드린다”며 “이 3박자가 다 필요하다. 장로님들뿐 아니라 모든 분들께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성도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목회자에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의가 앞선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목사에게 사랑받지만 성도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은 편중될 수 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존경받는데, 담임목사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 방향성을 잃은 사람일 수 있다”며 “3박자가 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대웅 기자

‘평온한 숲’으로 초대… 서은진 작가 개인전

LA 아트쇼 선정 작가, 한지로 빛어낸 치유의 미학

지난주 폐막한 ‘2026 LA 아트쇼’에서 ‘특별 전시’ 작가로 선정된 서은진(Jinny Suh) 작가의 작품을 LA 한인타운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EK 아트 갤러리(EK Art Gallery, 1125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는 지난 16일(금)부터 오는 1월 25일(주일)까지 서은진 작가가 참여하는 특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미술 축제인 LA 아트쇼에서 호평 받은 서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인 커뮤니티와 더욱 가까운 거리에서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지와 전통 자수의 변주, ‘평온한 숲(Peaceful Forest)’

이번 전시의 핵심 테마는 ‘평온한 숲(Peaceful Forest)’이다. 서

은진 작가는 10여년간의 미국 활동을 통해 구축해 온 독특한 세계를 이번 전시를 통해 드러낸다.

그는 캔버스 위에 한지를 겹겹이 쌓아 붙이는 콜라주 기법으로 마치 한국의 전통 자수를 놓은 듯한 섬세한 질감을 구현해냈다. 한국인에게 친근한 소재인 닭, 새, 나비를 배치해,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다가간다.

평론가들은 서 작가의 작품에 대해 “한국적인 소재인 ‘한지’와 ‘오방색’을 사용하면서도, 그 표현 방식은 지극히 현대적이고 세련됐다”며 “삭막한 도시 생활에 지



친 현대인들에게 시각적인 편안함과 정서적인 안식처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EK 아트 갤러리 전시는 이러한 서 작가의 예술적 성취를 기념하는 동시에, 아트쇼 현장을 방문하지 못했던 한인 미술 애호가들에게도 그의 작품을 만나볼 기회를 제공한다.

주소: EK 아트 갤러리 1125 Crenshaw Blvd, LA, CA 90019

토미 에드먼과 함께하는 트라이엄프

두 차례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끈 토미 에드먼이 1월 31일(토) 롤링힐스 커버넌트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과 야구 여정을 나눈다. 기독교 운동 선수 협회(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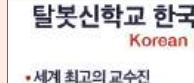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누구나 참여 가능. 입장은 저녁 5:30부터 가능.

일시: 2월 3일(수) 저녁 6:00-7:30

장소: Rolling Hills Covenant Church (2222 Palos Verdes Dr. N.)



2026 미주기독대학박람회



신입생 모집

탈북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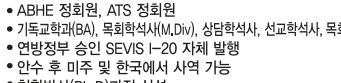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I-20) 발급

카카오톡 체널: “탈북” 검색

유튜브: “탈북신학교” 검색

Email: ktb.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기독교대학(BCA), 목회학대학(M.Div), 상담학대학, 선교학대학, 목회학박사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국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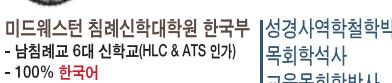
• 철학박사(Ph.D)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712)6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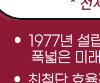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opicana,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의 새로운 이름

* 전세계 온라인으로 온 캠퍼스와 실시간 수업 가능 *

• 1977년 설립된 이후 지금은 선교 지향적 교육을 토대로 다양하고 폭넓은 미주지향적 교육을 주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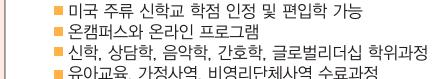
• 친환경 효율적인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 플랫폼 제공

• 고풍에 따라 영어, 한국어, 중국어 프로그램 (학사, 석사, 박사)

• SEVIS-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미국연방 인가된 학교

• 홈페이지 www.ptsa.edu | 입학문의 562.926.1023 (EXT 300)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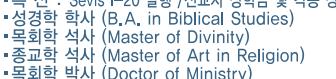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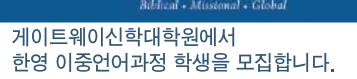
• 종교학 학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개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 강준민 목사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를 아는 지혜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눅 3:21하-22). 또한 예수님께서 젯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눅 22:43).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둘째,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찬양은 놀라운 능력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시 22:3), 다윗은 찬양의 능력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수금을 탈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상쾌해지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삼상 16:23하).

여호사밧 왕 또한 찬송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큰 군대가 그를 치러 왔을 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대하 20:12).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신 후, 여호사밧이 한 일은 전쟁터 맨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 것이었

습니다.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대하 20:21하-22). 찬양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때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모든 결박이 풀렸습니다(행 16:25-26). 더 놀라운 것은 그 사건을 통해 간수장과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전도의 문을 연 것입니다.

셋째,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가 등장합니다.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 던져 죽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감사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그가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습니다(단 6:22). 절망의 순간이 구원의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인생 역전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

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요 6:11).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도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요 11:41).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넷째,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순종은 축복의 비결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큰 복을 약속받았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나님”(창 22:17-18).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생각지 못한 풍성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눅 5:5-6).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이 삶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이웃과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던 중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일까?” 물론 하나님은 원하시는 때에 언제든지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어 응답하십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려 왔느니라”(단 9:21-23상).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가브리엘

■ 진유철 칼럼

풍랑이 아니라 믿음이 문제다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답수호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적인 지형이 분지 모양으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의 더운 공기가 한꺼번에 몰려들기 쉬운 공기 웅덩이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공기가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충돌하면 하늘은 맑은데 바다는 강한 돌풍을 일으키고 순식간에 파도가 상승하는 폭풍 같은 현상이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동하실 때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도 주무셨다는 이야기가 한 번 등장합니다. 대부분 밧사람 출신들이 제자들이 무던히 애를 쓰고 노력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며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되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라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신앙은 성숙의 자리로 가지 못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도 풍랑을 만나듯이, 신앙의 삶에도 고난은 만나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깨어나신 예수님은 먼저 풍랑을 잡아우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이” 예수님은 풍랑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이란 풍랑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선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불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높은 장대에 놓으로 만든 뱀을 매달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자신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하고 있으면 죽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텐트 밖으로

나와 장대에 매달린 놋 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분노한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의 시선을 돌 던지는 군중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므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은혜로 사람들을 용서하며 밝은 얼굴로 순교하는 스테반의 모습은 사울이란 청년을 위대한 바울로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 체포로 인한 혼란, 이란의 대규모 시위와 강제 진압으로 인한 혼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ICE 충격 사망 사건으로 인한 전국적 시위 사태와 트럼프 정부의 보편적 관세에 대한 법정 공방 등 갈수록 말세의 난리소문들이 불 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높은 장대에 놓으로 만든 뱀을 매달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자신을 바라보며 신세 한탄하고 있으면 죽고,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텐트 밖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의 동선에 자주 등장하는 갈릴리 바다는 배로 이동하면 보통 1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가 걸리는 호수이지만, 기상상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을 보면 북쪽에는 눈이 많은 헤르몬 산을 비롯하여 사면이 언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기에 갈릴리 호수면은 해수면보다 야파트 70층 높이에 가까운 210m나 낮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Serge PRESENTS
GCL을 개발한 Serge팀이 함께 합니다.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CL GOSPEL CENTERED LIFE conference

ALL NATIONS CHURCH

ANC 창립 30 주년 기념
1996 ★★★ 2026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시나요?

Jan. 24, 2026 / ANC 온누리교회 본당

8:00am-4:30pm / 점심 제공



복음 중심의 삶 콘퍼런스 (Gospel-Centered Life Conference)는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는지를 나눕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에 관심이 있다면, 콘퍼런스에 등록하세요!

문의: ANC 온누리교회 (818-834-7000) / www.anconnur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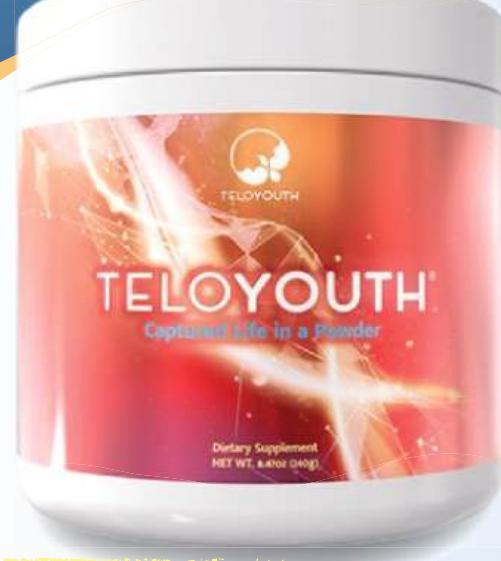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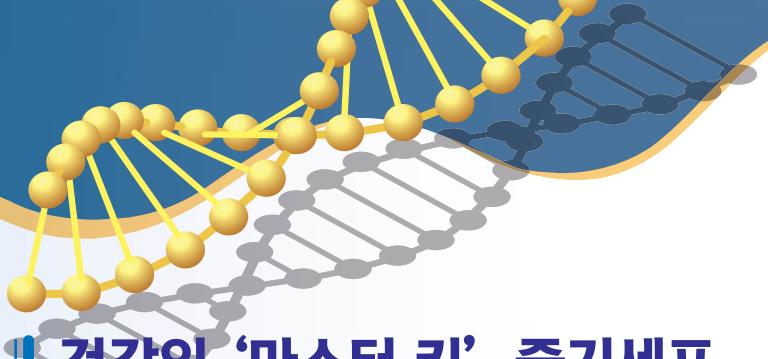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노화를 막는 시대를 넘어, 회복의 시대가 왔습니다”

주요 라디오 · 신문이 주목한 텔로유스(TeloYouth) 젊음회복 프로그램

LA 라디오코리아, 라디오서울, 우리방송, CBS 기독교TV, NY 라디오코리아, NY K라디오, 아틀란타 라디오코리아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욕일보, 타운뉴스, 교차로, 밸리뉴스 등 주요 신문사가 주목하고 있는 차세대 젊음 회복 기술, 텔로유스를 소개합니다.



건강의 ‘마스터 키’, 줄기세포

텔로유스는

우리 몸의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을 최대 3,600%까지 유도하는 10년 이상 앞서간 세포신호(Cell Signaling) 기반의 최첨단 생명공학 기술로, 몸 전체의 구조적 균형, 기능적 회복, 그리고 감정적 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텔로유스의 핵심 특징

10년 이상 앞서간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 기술
골수에서 줄기세포 배출 최대 3,600% 유도
온몸의 구조 · 기능 · 감정 체계까지 재생 & 회복

퀀텀 젊음회복 6개월 프로그램

패키지 \$2,478

무료 증정 **새해 프로모션**
\$2,478 패키지 구매시
텔로유스 파우더 한병(\$300)

12가지 국제인증마크와 제3기관 임상실험들, 그리고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텔로유스의 퀀텀 젊음회복 프로그램을 증명합니다!

Dr.D**Kim님: 갑자기 찾아온 전립선4기암 진단은 60여년간 의사생활을 해온 나에게도 실로 큰 충격이였습니다. 하지만 젊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전립선암수치를 측정하는 PSA가 400에서 209, 1.5, 0.8로 떨어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이 좋아진 것은 신경과 전문의로서 가히 우리몸에서의 줄기세포가 불가능하다는 신경세포도 되살릴수 있음을 확인해주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Dr.J**Park님: 22년간 가정주치의로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혈당은 약으로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높은 혈당으로 인해 다리부종이 심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혈당이 조정되며 붓던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A1C 가 8.1에서 7.3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이**님: 심장수술, 췌장암수술에 이어 두번의 뇌출증이 오며 위커로 겨우 걷던 것이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고, 물조차 입으로 먹을수 없어 G-tube를 낀 채 생활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젊음회복 프로그램 5개월째인 지금, 조금씩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입으로 다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S**님: 친구들이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봅니다. 70대에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고 팽팽할 수 있을까 거울보는 것이 행복합니다.

J**님: 지난 40여년 사용해오던 십여가지 약에 의지하지 않아도 하루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이**님: 부끄러워서 숨기고만 있었던 발톱무좀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W** 님: 20년간 복용하던 우울증약을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님: 불면증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날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D**님: 70대이지만 동창회가면 제일 젊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날마다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님: 90대에도 소일로 밭일하시며 마을에서 제일 건강하시다는 저의 노모의 건강은 텔로유스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F**님: 공황장애 약에 의지하지 않고도 많이 편해지고 자유로워졌습니다.

R**님: 간년기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늘 피곤하면 나타나던 구순염도 이제는 더이상 나오지 않네요

S**님: 평생 고생하던 천식때문에 기침을 달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너무나 멀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 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뿐만 솟습니다.

**자님: 80대에도 고운 피부와 젊은 에너지로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J**님: 10년동안 고생하던 혈당조절이 이제 정상으로 잘 됩니다.

N**님: 딸인 저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했던 엄마가 저를 알아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 외 수많은 체험사례들을 www.TeloYouthKorean.com 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임상실험 Clinical Studies

인지기능 46.2% 향상/줄기세포배출량 377%. University of Miami

우울증개선 Blefgell Hospital, Kongsberg, Norway

스트레스호르몬 50%까지 감소. University of Trier, Germany

성욕구/만족도 University of Trier, Germany

근육량 증가 University of Colorado

이런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120세까지 건강하고 젊게 사시고 싶은 분들
- 역노화 (Reverse aging) 기술력으로 10년이상 젊어지고 싶은 분들
- 밤에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듬/ 기운 없고 늘 피곤함
- 각종 염증으로 늘 고생함/ 스트레스를 못 이겨냄/ 의욕이 없고 우울함
- 장 트리플/ 소화력이 떨어짐/ 눈이 건조하고 침침함
-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짐/ 혈당조절이 힘듬/ 통증에 시달림
- 몸의 여러 구조와 기능들이 만성적으로 고장나 고민하고 계신분들

[파트너 모집 | 40-50대 환영]

최첨단 생명공학 세포신호기술 기반

젊음회복 프로그램 전문 코치

의미 있는 일과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

문의 : 레이첼 건강 수석 코치

☎ 714-851-8035



TELOYOUTH

www.TeloHealing.com

강태광 칼럼

건강한 기독교 문화 창달을 기도하며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대표

노랫말도 근사한 이별 노래다. 만남과 이별을 겪으며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하다. 음악을 모르지만, 음률도 귀에 감긴다. 공연을 즐기는 배우들 반응도 좋았고, PD의 기획, 재능, 그리고 열정이 돋보인다. 이렇게 명 영상이 탄생했다.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는 무대는 2017년 53회 백상 예술대상 축하 무대다. 33명의 단역배우가 “꿈을 꾼다”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서럽고 고단한 단역배우의 꿈을 노래했다. 단역배우의 애환을 아는 유명 배우들도 노래를 들으며 같이 울었다. 공연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다. 이 무대의 명장면은 관객이 된 스타 배우의 눈물이다. 탁월한 공연과 반응이 빛났다. 이런 명장면을 보면 샘나고 부럽다. ‘기독교 방송문화는 이런 감동과 도전을 줄 수는 없을까?’라는 부러움이다. 기독교 방송 역사에도 이런 명장면이 있다. 1941년 8월 6일에 시작되었던 영국 BBC 방송국의 기독교 강연 프로그램이 있다. 방송 강연의 강사는 옥스퍼

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인 C.S. 루이스였다. 이 강연은 역사상 최고의 기독교 변증 프로그램이 되었다. 당시에도 월리암 텁플등 영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들이 방송 설교가 많았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평신도의 시선과 평신도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했다. 구상은 적중했다. 많은 시민이 방송 강연에 귀를 기울였다. 심지어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군인들이 라디오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4주로 계획된 강연은 4차까지 연기되었다. 강연을 마치고 C.S.루이스 교수는 강의안을 책으로 출판했다. 처음에는 소책자로 출판했다. 나중에 정리해서 출판한 책이 현재 우리가 읽는 〈순전한 기독교(Mere Christianity)〉이다. 아직도 수많은 독자가 읽고 있고, 많은 독자가 이 책으로 회심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다.

〈순전한 기독교〉가 가진 파괴력의 비밀은 이해되는 기독교 진리다.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한 평신도가 불신자의 눈높이로 전

한 메시지에 영국 지성인과 젊은이들이 열광했고, 유럽과 미국 사회도 열광했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키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했다. 기독 언론이 작성했으면 좋겠다. 너무 뻔한 설교나 칼럼으로 방송 시간과 지면을 채우는 것은 전파 낭비로 지면 낭비다. 세상에는 진정한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이 많다. 인생의 궁극적 질문을 품고 해답을 찾은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문화 작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문화에 복음을 담아 그들에게 전하는 진정성 있는 기독교 문화 창달이 절실히하다. 새해를 시작하며 시작한 기도가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의 갈증을 해갈하는 문화 작품이 개발되기를 기도한다. ‘굿 굿 바이’를 능가하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복음 영상이 나오기를 기도한다. 순전한 기독교를 능가하는 기독교 변증서가 태어나길 기도한다. 오고 오는 세대에게 설득력 있게 그리스도를 전할 근사한 기독교 문화 작품이 나오는 2026년이 되길 기도한다.

2025년 11월 19일 열린 제46회 청룡영화상에서 가수 화사와 배우 박정민이 선보인 ‘Good Goodbye’ 무대가 화제다. 곧 1억뷰 동영상이 될 것 같다. 국내외 여러 평론가와 기자들이 칭찬이 자자하다. 그야말로 인구(人口)에 회자(瞻炙)하는 동영상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K-pop 동영상이다.

이 동영상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우선 노래가 좋다. 노래 제목도 좋은 이별(Good Goodbye)이고, 후회조차도 굿바이한다는

최국현 칼럼

[신년 메시지] 오렌지 카운티 교회협의회 회장 최국현 목사

최국현 목사
O.C 교회협의회 회장

사랑하는 지역사회와 한인 동포 여러분께,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언제나 설렘과 함께 소망을 품게 합니다. 지난 시간 속에 아쉬움과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새 길을 여시며 선한 뜻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민수기 6:24-26)

이 축복의 말씀처럼, 2026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지역사회와 모든 가정을 친히 지켜 주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다양한 문화와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새해에는 교회들이 더욱 하나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인 커뮤니티가 신앙 안에서 더욱 건강해지고, 가정은 안정되며, 다음 세대는 꿈을 키워 나갈 수 있기 를 기도합니다. 또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

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지역 전체가 평안과 질서 가운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담장 안에 머무르지 않고, 사랑과 나눔으로 지역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는 새해에도 연합과 섬김의 자리에서 겸손히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지역사회를 세우고, 모든 커뮤니티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 위에 믿음과 건강,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상범 칼럼

리셋(reset)을 두려워 마라

고상범 목사
주일학교사역자연구소장·주사모 대표

요즘 교회학교 현장에서는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자주 들린다. 아이들의 반응은 달라졌고, 예전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듯 보인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리셋’을 떠올리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낀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리셋 이후에 새 일을 시작하셨다. 흥수 이후 노아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빛으셨으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 리셋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

의 새로운 시작의 방식이다. 변화는 방법을 바꾸는 것지만, 혁신은 사명을 다시 불드는 일이다.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바꿀까?”가 아니라 “우리는 왜 아이를 곁에 서 있는가?”다. 교회학교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 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증인이다. 진정한 혁신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교사의 마음에서 시작된다. 리셋은 교사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혁신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수고 위에

새 은혜를 더하신다. 이제 아이들 앞에서 완벽한 교사보다, 함께 배우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교사가 필요하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9).

지금의 리셋은 위기가 아니라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교사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신다. 리셋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무너지는 교회학교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질 교회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자.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기독일보
창간 22주년을
축하합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전화 1-877-580-2424 샌디에(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주정부 허가: MTR-190586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Fully Insured & Bonded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 귀국자동차 운송
-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둘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연합과 섬김, 위로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니다

위브리지 컨퍼런스

“건강한 교회 세우기(연합, 섬김, 위로)”

2026년 1월 26일(월) - 27일(화)

플라워마운드교회(담임 최승민 목사)

(200 Flower Mound Rd, Flower Mound, TX 75028)

컨퍼런스 강사



김귀보 목사
큰나무교회 담임



김경도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사역목사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원로목사



손해도 목사
달лас 코너스톤 교회 담임



허양희 사모
어스틴주님의 교회



다니엘 박 선교사
순회 선교사



강태광 목사
World Share USA 대표



문선영 대표
WISE CALIFORNIA 대표



개회예배



폐회예배



특별집회 (저녁/야침)



홍장표 목사
달лас 수정교회

이윤영 목사
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원하트미니스트리 찬양

이성철 목사
GMC 한미연회

최승민 목사
플라워마운드교회 담임목사

*누구나 참여 가능한 특별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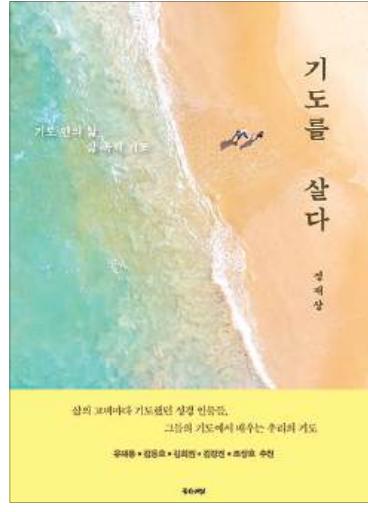
We Bridge 달拉斯 컨퍼런스는
목회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며
회복과 동행의 길을 모색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입니다.
달лас 지역의 목회자 · 사모 · 선교사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등록자에 한해 참석 가능



- ① 등록마감 2026년 1월 19일(월)까지
- ② 등록비 무료
- ③ 문의 기독일보 (213-434-1170)
- ④ 신청방법 QR코드 스캔 후 온라인 등록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기도 함께 실천하도록 돋는 책

기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반으로… 기도를 살다



기도를 살다

정재상 | 좋은씨앗 | 296쪽 | 18,000원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기도를 다시
배우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로 다시 살아가자'고
초대하는 기도 회복
안내서이다

저자 정재상 목사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삶”이라는 주제를 중심으
로, 아브라함과 한나,
다윗, 히스기야, 에스라 등
성경 속 18명의 인물들의
기도 장면을 따라가며 기도
가 단순한 의무나 형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임을 풀어낸다.
『기도를 살다』는 단순한
기도 지침서나 간증 중심의
묵상집과는 다르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국내 저자가 쓴 책과 번역서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차이점이 있다. 국내 저자가 쓴 책은 내용에 있어 번역서보다 실용적이고, 예화에 있어서는 더욱 친밀하다. '기도'를 다루는 번역서는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특징을 분석하는 방대한 내용이 따라온다.

하지만 '기도'를 다루는 국내 저자의 방식은 훨씬 더 실용적인데, 원론적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기도의 종류와 방식을 설명하고 실천하게 하는 일에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한다. 나눔 문제도 번역서는 내용을 되새기는 일에 중점을 두고 한두 문제로 삶을 나누게 하는 편인데, 국내 저자의 책들은 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한 도구로서 질문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높은뜻정의교회 담임목사이자 장로회신학대학 영성학 겸임교수인 정재상 목사가 쓴 〈기도를 살다〉는 어떤 면에서 기존 국내 저술들의 특징을 잘 살린 책이라 말할 수 있다.

영성학을 오래 연구한 학자로서 '영성을 교리적으로 풀어내'고 '교리를 영성으로' 이끌어내는 데 헌신하고 있는 정 목사는, 기도에 관한 교리가 단지 교리의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교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영성 훈련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독자에게 선물한다. 특히 1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루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12쪽)'고 믿기 때문이다. 저자는 다양한 보조자료(책갈피, 핵심 내용, 기도 살아가기, 기도 돌아보기, 영적 지도)를 활용해 독자가 기도에 관한 실질적 지혜를 얻어 책 제목처럼 '기도를 살다'게 되기를 소원한다. 2부는 기도의 시작, 마지막 6부는 기도의 완성으로 구성된 '기도를 살다'는 간구 기도, 사귐의 기도, 회개 기도를 각각 다루고, 하박

국, 모세, 여호사밧, 야곱 등 기도의 사람들을 조명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중보하며 찬양하고 새로워지는지 설명한다.

마지막 '기도의 완성'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기도드린 성막/성전의 구조와 거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 중심 기도의 명령이자 모델인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룬다. 부록에서는 '23 가지 질문과 답변으로 기도 살아 보기'로, 지금까지 다른 기도의 내용과 방식을 질문에 대한 답의 형태로 새롭게 분류해, 가령 '기도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3장과 20장의 내용을 읽어보라는 답변을 달았다(287-290쪽). '더 읽어볼 책'으로 각 장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추천하는 것도 책을 사랑하는 독자에게는 유익을 줄 것으로 보인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사귐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고, 그 대표적 방편이 바로 기도다. 그러나 종종 영생을 추구하는 이들 중에서 신비가 아니라 신비주의를 쫓으려는 잘못된 행태를 발견할 때가 있다.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분과 기도로 교제할 때, 반드시 신비주의적인 말과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비이성적이거나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정 목사가 이 책의 시작부터 말한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가장 확실한 지식은 바로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당시 그리스 우상 신전에서 자주 그들의 신에게 바쳐진 기도처럼 황홀경을 추구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감정을 쏟아내는 그런 영성 기도를 추구하면 안 된다. 동시에 기도가 무



2027 민족복음화대성회 대장정을 시작하는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미건조한 교리의 정보만 나열하는 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저자가 바라는 것처럼 교리가 빛어낸 영성, 영성이 살아 있는 교리의 균형이 잘 잡히는 것이 기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독자는 정 목사의 〈기도를 살다〉를 통해 실제적 기도 훈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그룹에서 이 책을 활용하면, 다양한 보조자료와 함께 기도를 실천하는 일에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팀 켈러는 2015년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라는 부제를 달고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을

썼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의무다. 기도가 기쁨이 되기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 〈기도를 살다〉가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사귐이 더욱 깊어지고, 삶의 어떤 국면에서도 기도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받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17
24:6, 1, 4-14
I love those who love me, and those who seek me find me.
PROVERBS 8:17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각종 보험 완비
Comprehensive Insurance Coverage

다양한 임상경험
A variety of Clinical Experience

체질 맞춤 보약, 알약
Constitution-Customized Herbal Medicine

체열 사진촬영
Thermal Imaging Photography



Diamond Bar
Golf Course

Golden Springs Dr.

Shalom Acupuncture
Clinic (설봉한의원)

Michael W. Brown,
LLP Attorneys at Law

Diamond Bar
Village

Target



설봉한의원

Diamond Bar 설봉한의원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909) 860-4260
cell: (213) 518-4635 / shalomacu.drkim@gmail.com

22640 Golden Springs Dr., STE B, Diamond Bar, CA 91765



DR. JUNE KIM LAC

1st Time
Discount
50%
with Google Reviews

전 세계 3억 8,800만 명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

작년 한 해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 1명이 차별과 억압, 폭력, 살해 등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 수준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오픈도어는 15일 서울 노량진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세미나실에서 2026년 월드와치리스트(WWL·World Watch List, 세계기독교박해지수) 발표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가 매년 기독교인이 극심한 박해를 겪는 50개 국가를 평가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연간 보고서다.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비롯하여 개인·가정·공동체·국가·교회 생활 등 6개 영역에서 압박 정도를 정교하게 분석·측정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실태를 파악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 중 하나로 활용돼 왔다. 1992년 WWL 리서치팀이 조직돼 1993년부터 매년 1월 전 세계에서 동시에 WWL을 발표하고 있다. 2026년 순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수집, 검증된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됐다.

◇상위 50개국 박해 지수 합계는 사상 최고치... 북한은 부동의 1위

한국오픈도어는 “전 세계 3억 8,8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고통받고 있으며, 상위 50개국의 박해 지수 합계는 3,810점으로, 전년 대비 35점이 상승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박해 지수 최고 단계인 ‘극심함’(81~100점)의 범위가 상위 15위까지 확대됐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2년부터 2021년까지, 2023년부터 2026년 올해까지 24년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박해가 심각한 국가로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으로 박해 수위가 급격히 높아진 아프가니스탄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국오픈도어는 “북한은 변함없는 세계 최악의 박해 국가로, 군사력 강화 및 폐쇄적 독재를 작년에도 유지했다”며 “압박 점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 월드와치리스트(WWL) 지도 ©한국오픈도어

이러한 수치는 독재 권력의 강압적 통제가 사회 모든 부분에 깊숙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올해 박해 10대 국가는 1위 북한(97점), 2위 소말리아(94점), 3위 예멘(93점), 4위 수단(92점), 5위 에리트레아(90점), 6위 시리아(90점), 7위 나이지리아(89점), 8위 파키스탄(87점), 9위 리비아(87점), 10위 이란(87점)이었다. 11위 아프가니스탄(86점), 12위 인도(84점), 13위 사우디아라비아(82점), 14위 미얀마(81점), 15위 말리(81점)도 10위권에는 들지 못했으나, 박해가 가장 극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리아, 폭력 급증하며 박해 순위도 18위→6위

올해 가장 큰 폭으로 박해 순위가 올라간 국가는 시리아였다. 2025년 WWL에서 18위(78점)를 차지했던 시리아는 다마스쿠스 교회 공격 및 정권 교체로 인한 불안정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급증하며, 박해 지수가 12점 상승해 90점에 도달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시리아의 전체 점수가 12점 상승한 것은 주로 폭력 점수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이라며 “폭력 점수가 7.0에서 최대 점수에 근접한 16.1점으로 뛰어오르며 극도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로 교회 공격, 북동부 지역 기독교 학교의 폐쇄, 살해된 기독교인의 증가 등이 지적된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 12월 정권 교체 이후 심화한 불안정과 무법 상태로 인해 전반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압력 수

준도 높아졌다”며 “지역 민병대와 무장 세력의 확산은 기독교 공동체를 협박, 갈취, 표적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오픈도어는 “WWL은 보고 기간, 최소 27명의 시리아 기독교인이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년 전년도 0명과 대비된다”며 “2025년 6월 다마스쿠스에 위치한 마르 엘리아스(Mar Elias) 그리스정교회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으로 기독교인 22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시리아 기독교인을 향한 폭력 사건은 다양하게 발생했다. 한국오픈도어는 “하마(Hama)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장 괴한들이 그리스정교회 대주교구를 공격해 교회 재산과 종교 상징물을 파괴하고, 인근 기독교 묘지의 무덤을 훼손했다”며 “교회들은 반복적인 공격에 노출되었고, 기독교 학교들은 폐쇄되었으며, 교회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도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 연구진은 “다마스쿠스에서 발생한 공격 이후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 출석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많은 교회가 보안 문제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추가 공격에 대한 불안과 이슬람 급진주의의 확산으로 성도들은 기독교 상징물을 숨기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3월 제정된 시리아 과도 정부의 과도 헌법은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고, 이슬람 율법을 입법의 주요 근원으로 규정했다. 교육제도도 이슬람 이념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슬람 이전의 역사는 삭제되고, 기독교인을 ‘저주받고 길을 잃은 자들’로 묘사하는 꾸란 해석이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한국오픈도어는 “현재 다마스쿠스의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서는 확

성기를 장착한 차량들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촉구하고 있다”며 “또 교회에는 개종을 요구하거나 비무슬림이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지자야(Jizya)를 내라는 전 단이 게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도어는 현재 시리아에 남은 기독교인을 약 30만 명으로 추정한다. 2013년 이슬람국가(IS) 세력이 이 지역 전반에 급속히 확산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수십만 명이 감소한 수치다.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특히 치안이 부재한 지역에서는 현지 기독교 가정들에게 보호를 제공할 부족 연계가 없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상황이다.

하지만, 시리아에서 희망의 징후는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예수님에 관해 묻고 찾는 시리아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기독교인 폭력의 세계적 진앙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벌어지는 박해 규모도 여전히 충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WWL에 포함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4개국의 종인구는 7억 2,100만 명 이상이며, 이 중 거의 절반이 기독교인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 8명 중 1명은 이 14개국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지역 전반에서 폭력 점수는 급격히 상승했다. 10년 전 WWL에 포함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12개국의 폭력 점수 합계는 최대 가능 점수의 49% 수준이었으나, 2026년에는 14개국의 폭력 점수 합계가 최대치의 88%에 이르렀다. 2026년 기준으로 폭력 부문에서 최고점인 16.7점을 기록한 국가는 단 세 나라인데, 이들 모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인 수단, 나이지리아, 말리였다. 작년 11월 노델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앙을 이유로, 매년 대규모로 살해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들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명했다. 당시 이 발언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언론들은 나이지리아 내 박해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 보도를 했다.

한국오픈도어는 “보고 기간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살해된 기독교인 4,849명 중 93%인 4,491명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전체의 72%인 3,490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희생됐다. 전년도 나이지리아 희생자(3,100명) 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2025년 6월 무슬림 풀라니(Fulani) 무장 세력은 베누에주(Benue State) 기독교 농촌 공동체인 옐와

타(Yelwata)를 4시간 동안 공격해, 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258 명이 총살되거나 불태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오픈도어는 “나이지리아의 분쟁은 복합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으나, 가해자들의 명확한 의도는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풀라니 무장 세력은 공격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을 파괴할 것’이라고 외쳤다. 또 납치된 기독교인들은 보코하람(Boko Haram) 대원들로부터 ‘네가 무슬림이었다면 이런 고문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는 이처럼 극도의 위험 지역이 존재하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공존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국가로, 특수성을 반영한 행동과 기도가 촉구되고 있다. 수단에서는 내전이 계속되며 기독교인들의 강제 이주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현재 수단 국민 960만 명이 국내 실향민이며, 정부군과 신속지원군(Rapid Support Forces) 양측 모두 이슬람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수단의 박해 순위는 4위로 상승했다.

한국오픈도어는 “이러한 양상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반복되고 있다”며 “취약한 정부 통치로 인해 발생한 권력 공백을 이슬람 무장 세력이 채우며, 부르키나파소, 말리,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니제르, 모잠비크 일부 지역에서는 이들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은 채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에리트레아처럼 국가 권력이 기독교인을 직접 탄압하거나, 에티오피아처럼 기독교인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국가도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한 상위 15개국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아시아 9개국(북한, 예멘, 시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미얀마), 아프리카 6개국(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리비아, 말리)이었다. 박해 순위가 상승한 국가는 시리아(18위→6위), 수단(5위→4위), 에리트레아(6위→5위), 부르키나파소(20위→16위), 카메룬(43위→37위), 타지키스탄(39위→27위), 중앙아프리카공화국(27위→22위), 네팔(54위→46위)이었다. 박해 순위가 감소한 국가는 리비아(4위→8위), 방글라데시(24위→33위), 베트남(44위→55위)이었다.

이지희 기자

학생 모집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교

B.Th, Th.M, M.Div, D.Min, Th.D coafs-07-388665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신학박사 인가 대학은 3곳뿐입니다.

■ 학교운영하실 분 \$7만불 (신학철학책 1만권 포함)

■ 나성중부교회 김호 박사 / 캘리포니아 디렉터

213-507-1933

한국오픈도어는 “현재 다마스쿠스의 기독교인 거주 지역에서는 확

네번째는 지출을 좀 줄이자가 새 해 재정 결산에 들어갔습니다. 약 30~49%의 미국인이 “지출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외식 횟수, 출동 구매 등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불 필요한 과부화된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결론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음. 세대별로 이 저축의 목표나 이유도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The Motley Fool의 조사에 따르면 출생연도: 1997년 ~ 2012년 약 13살 ~ 28살인 Gen Z: 44세까지인 millennials: 부채 감축 / 여행·일상 큰 지출 대비 저축 / 1965년 ~ 1980년 2025년 기준 나이: 45세 ~ 60세, 1946년에 서 64년까지 태어나 현재 61세부터 79세까지인 베이비부머(Baby Boomer): 퇴직 저축·부채 정리 + 주택 개선·은퇴 준비등이 재정 목표이자 저축의 이유였다는 거죠. 다섯번째는 돈을 더 벌어서 인 켈을 늘려야겠다 인데요. 추가 수

네번째는 지출을 좀 줄이자가 새

해 재정 결산에 들어갔습니다. 약

30~49%의 미국인이 “지출

줄이고 소비를 절제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구독 서비스, 외식 횟수, 출동

구매 등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불

필요한 과부화된 지출을 줄이겠습니다.

결론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음.

세대별로 이 저축의 목표나

이유도 조금씩 다른데 이것도 재밌습니다.

The Motley Fool의 조사에

따르면 출생연도: 1997년 ~

2012년 약 13살 ~ 28살인 Gen Z:

44세까지인 millennials:

부채 감

축 / 여행·일상 큰 지출 대비 저축

/ 1965년 ~ 1980년 2025년 기

준 나이: 45세 ~ 60세, 1946년에

서 64년까지 태어나 현재 61세부

터 79세까지인 베이비부머(Baby

Boomer): 퇴직 저축·부채 정리

+ 주택 개선·은퇴 준비등이 재정

목표이자 저축의 이유였다

는 거죠. 다섯번째는 돈을 더 벌어서 인

돈을 늘려야겠다 인데요. 추가 수

Sunyoung Moon
Financial Professional | 재정전문가

626.827.9599

SYMOONMONEYTALK@GMAIL.COM

Finance & Marketing WISECALIFORNIA 문선영의 머니토크 라디오와 문선영의 머니토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새해맞이
세일즈 이벤트



NEW 2026 HYUNDAI
Palisad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Elantra
Hybrid

0%

APR Financing
(차종에 따라서)

72개월까지 할부 가능
스페셜 리스 프로그램 가능

Special Lease Program available

NEW 2026 HYUNDAI
Ioniq 9
Limited



NEW 2026 HYUNDAI
Santa Fe
Calligraphy



NEW 2026 HYUNDAI
Ioniq 5
Limited RWD

함께 일할 세일즈맨 구합니다!

한인 메카닉 서비스



PAUL KIM



MIKE LEE



JUSTIN KIL



CHARLEY JEONG



JAMES PARK



HARLEY KIM



Frank Kim



Sean Kim



Jae Le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1-888-644-7114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